

HRD
7월의 이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 협약 체결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브리프 첫 발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최대 **900**만 원 (월 75만 원×12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3억 원 → **4억 원** 이하 (청년기구재산상한요건)



여성 경력단절 이후 노동현황

30대 **46.6%**



5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61.9만 명 증가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조지 무어-

통권 제64호
발행일 2021년 7월 14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052-714-8327
구독신청 및 문의 jycheon47@hrdkorea.or.kr



cover 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등 대국민 고용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NOW

- 0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05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0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 09 고용노동부,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추진

현장 NOW

- 1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 협약 체결
- 11 '21년 1분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브리프 첫 발간
- 12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업무협약
- 13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 13 중소기업 능력중심 인사체계 확산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주년 기념 및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 15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체결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직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 개최
- 16 벤처·혁신기업-청년 이음 채용설명회 온라인 개최
- 17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 17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이행 현황 발표

고용 BRIEF

- 18 2021년 5월 고용동향

연구 ISSUES

- 20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종료에 따른 NCS 활용변화 및 확산방안 연구
- 20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
- 21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분석
- 21 2020년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성과 평가

기관 PLAN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책NOW 1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지원사업 시행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 x 12개월) 지원

2021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 ◇ 5월 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 ◇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내용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 ◇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4 신청방법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5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여부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정책NOW 2

●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①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비대면 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정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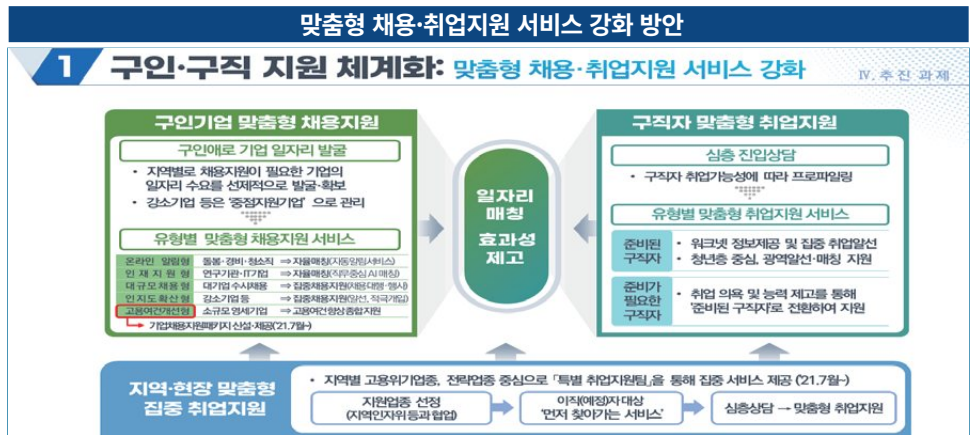
2021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 맞춤형 채용·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p>1.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고용여력 분석진단 맞춤형 지원 경로 설정 	<p>2. 고용여건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노무 컨설팅(일터혁신컨설팅 연계) 인프라·환경 개선(기숙사, 통근버스, 스마트공장, 클린사업장 등 지원) 맞춤인재 양성(훈련, 일경험 지원 등) 	<p>3. 채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 알선 (고용장려금 연계) 채용대행 사후관리
----------------------------------------------------------------------------------------------------------	---------------------------------------------------------------------------------------------------------------------------------------------------------------------------------	----------------------------------------------------------------------------------------------------------------------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

◇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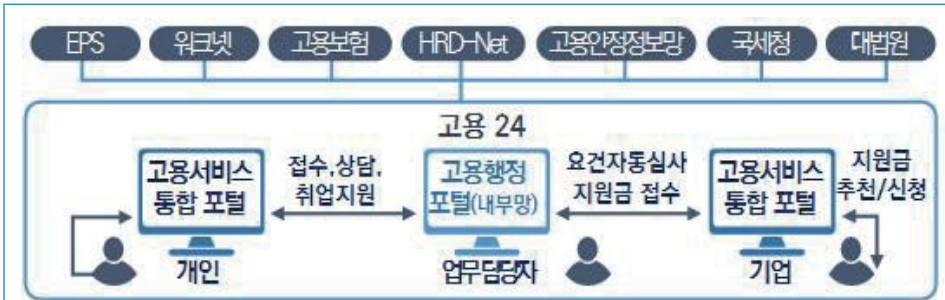
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

- ◇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 24」 시스템 구축(안)



- ▶ 모든 민원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한 통합 전산망 구축
- ▶ 각종 지원금 추천·신청 등을 방문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 ◇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이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이다.

*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 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

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 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 ▲무급휴직지원금은 '22.3.31.까지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시행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 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확대

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 등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2> (법률 개정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요건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 원 ↓)이면서 취업경험 있는(2년내 100일 ↑) 청년 → 요건심사형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3억 원 ↓)이면서 취업경험 없는(2년내 100일 ↓) 청년 → 선발형 특례 지원

- 청년은 취업경험이 있으면(2년내 100일 이상)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법률 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은 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 저소득 구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안) 개정내용

- ①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60% 이하

- ②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 → (개정)4억 원 이하

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현행)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보도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 고용노동부, ●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코로나 19 대응과 코로나 이후를 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체계 구축 지속 추진

2021년 6월 7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상담사·내담자 간 친밀감·신뢰관계(라포, rapport)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다. 향후,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이해 및 활용능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프로그램과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작년에 비대면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제공했고,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희망프로그램(취약계층 대상) 등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금년 내에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대상별로 신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도 기존의 모둠활동 중심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개인별 실습활동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특강의 경우 사이버진로센터, 스텝(STEP)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및 동영상 강화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취업상담 및 기업채용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도 구축해서 채용·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된다. 올해 6월부터 워크넷 내에 화상상담시스템을 탑재하여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집체교육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을 통해 약 3만 명의 구직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113개 기업에 대해 총 355회의 화상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회의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센터에서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고용환경 등에 맞춰 고용센터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증명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 보도자료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해 집단 상담방식으로 운영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2명 내의 구직자 참여, 프로그램별로 2~5일간 운영)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자가 자신에게 부족한 취업역량 부분을 선택,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 (25명 이하의 구직자 참여, 1회 3시간 운영)

현장NOW 1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 실천 협약 체결

2021년 6월 9일, 관계부처 합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 14: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대표: 김인기)를 방문했다.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SW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방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관련 기업, 훈련기관,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통해 예상 부족인력 2.9만 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9만명을 추가한 총 41.3만 명을 ’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단기) 중소·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주도한 수요 맞춤형 훈련도 제공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훈련 지원(S-OJT)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2 (중기)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학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한다. 기업이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 3 (인프라) 인재양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초·중등 학생, 구직자, 군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협회, SW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①중소기업의 SW인재 영입 어려움 ②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③‘취업멘토’와 같은 진로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하여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SW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NOW 2

● '21년 1분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① 이슈브리프 첫 발간

2021년 6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kills Council, 이하 ISC)가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토대로 '비대면 시대: 산업별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담은 '21.1분기 이슈브리프'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슈브리프는 ISC가 작성한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산업계 현황을 공통 주제로 작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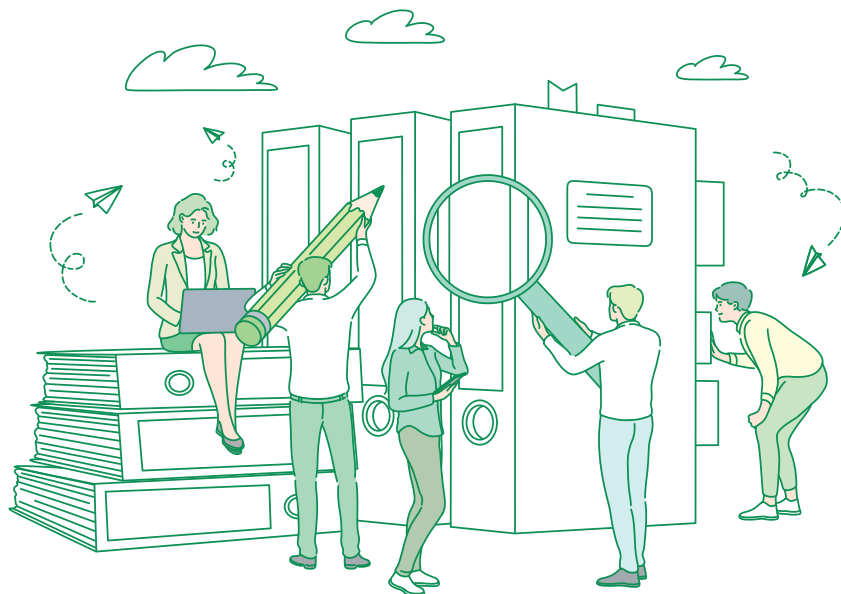
'21.1분기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의 증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달라진 산업환경에 발맞춰 근무형태, 인사관리, 교육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별 대응 현황 및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코로나로 비대면 근무환경과 온라인 교육 훈련이 가속화되었으며, 산업별 노동시장·교육훈련 서비스 분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사·인적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비대면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하는 훈련시장에서는 이러닝 산업과 에듀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는 18개 ISC 관련 산업계 인사담당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담당자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학계 등에 전자우편 서비스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누리집(<http://www.isckore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21년 1분기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ISC) 이슈브리프 첫 발간
 보도자료



* 이슈리포트 : 18개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분기별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
 적자원개발 관련 내용 등을 수록



현장NOW 3

●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업무협약

2021년 6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6월 25일, 일학습병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잡코리아는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을 홍보하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전용채용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유료서비스 할인 혜택, 인성·적성검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1만7천여 개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11만여 명의 참여근로자에게 잡코리아 플랫폼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은 현재 참여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해 훈련장려금 증액 지원, 타 사업 중복지원금 지급 허용 등 기업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 원년인 올해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기업 발굴 강화, 비대면 훈련방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취업시장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우수 중견/중소기업들이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들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더 쉽게 영입하고,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업무협약 보도자료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중이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8100) 문의 또는 일학습병행 블로그 (blog.naver.com/run-learn)를 통해 확인

현장NOW 4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 2021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6월 28일(월)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최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시기 고용문제는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주도의 훈련·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NOW 5

**● 중소기업 능력중심 인사체계 확산을 위한
● 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2021년 7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9년 11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방안*」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능력 중심 인사체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내 직무능력 기반 채용, 재직자 훈련 등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에 적합한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는 순환구조 형성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설명자료 도출, 직무별 채용 평가도구 개발·보급, 채용 접수페이지 지원, 중소기업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 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 절차를 통해 직무 적합 인재를 선발한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능력 중심의 청년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능력 중심 채용모델 등의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능력중심 인사체계 확산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
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채용, 컨설팅 확대, 우수사례 선정, 채용절차법 현장안착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주년 ● 기념 및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2021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6월 18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시상식은 '20년 훈련실적, 훈련생 만족도 등 성과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템, 케이티, 삼성중공업 등 대중소상생 분야 8개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20년 우수 공동훈련센터

- ▶ **대중소상생형(8)** : 현대로템, KT, 대동공업, 한국전기공사협회,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삼성SDI
- ▶ **전략형(12)**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특히 올해에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원년('01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공동훈련센터(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와 전담자(삼성중공업 천명준 파트장)가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에 공로패를 받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기업 주도로 20년 동안 조선업 분야의 신규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컨소시엄 사업은 '01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 '21.6월까지 전국에 142개(대중소상생 분야 71, 전략 분야 71)의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에 참여 중이며, 매년 평균 협약기업 10만 개소, 18만여 명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중소 상생을 통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훈련인 컨소시엄 사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자율과 성과 중심의 훈련 운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특히 컨소시엄 기관이 K-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여 훈련 기반시설을 청년·구직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디지털훈련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개최사를 통해 우수기관의 성과를 격려하면서 신기술 훈련 확대와 컨소시엄 사업의 사회적 기여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주년
기념 및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보도자료



컨소시엄 사업이란?

- * 대기업·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훈련·연수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를 제공
-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생태계 및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에서 필요한 훈련을 실시

현장NOW 7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표준협회
● 업무협약 체결**

| 2021년 6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한국표준협회와 6월 23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한국산업표준(K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국산업표준(KS) 내 교육훈련 표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지식, 기술, 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능력 중심 인사관리로 평생학습 지원, 일자리 지원,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과제를 발굴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 국민의 평생 고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한국산업표준(KS)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계를 위한 공동협력, △산업별 표준·품질·인증·자격 등에 대한 각종 정보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산업표준(KS)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개최 등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및 직무능력 인증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NOW 8

**●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직자와 함께하는
●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 개최**

| 2021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22일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직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평소 관심 있던 직무나 분야의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 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직자가 퇴근 이후로 시간을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두 현직자가 참여하여, 취업 준비과정 및 입사에 도움이 되는 경험, 공공기관 채용제도 등 설명을 통해 취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했다. 앞으로 월 1~2회 진행될 ‘온라인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는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청년재단 누리집(yhf.kr)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금융권, 공공기관, 언론,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를 통해 취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청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채용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직자와의 만남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현직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청년들의 효율적인 취업 준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업과 청년 간 취업 관련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산업표준법에 의거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위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직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 개최
보도자료



* 기업별 사회공헌활동을 확장, 현직자 선배가 청년 구직자에게 멘토링·카운슬링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 추진 ('21.상)

<청년 대상 현직자 직무 토크 희망 조사 ('21.4. 청년 402명)>
공사·공기업(24.9%), 마케팅(10.0%), 인사·총무(7.2%), 회계·재무(7.2%), IT개발(6.0%) 순

● 벤처·혁신기업-청년 이음
● 채용설명회 온라인 개최

2021년 6월 28일~7월 16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3주간, 청년이 벤처·혁신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혁신기업-청년 이음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난 3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성장유망 분야 기업과 청년 간 맞춤형 일자리 알선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벤처·혁신기업들은 주로 기업 대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대국민 인지도가 낮아, 기업에 관해 설명하고 청년을 채용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다. 청년들도 코로나19 이후 수시채용이 확대되면서, 채용정보를 계속 검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좋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주)에스티에이테스팅컨설팅, (주)맥아이씨에스 등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망한 기업 150여 개가 참여하며, 채용설명회 기간 중 참가기업 수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채용설명회 누리집(www.youth-jobfair.career.co.kr)을 통해 이력서를 등록하면 된다. 채용정보 외에도 예약을 통해 취업컨설팅, 진로상담, 인·적성검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보도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채용설명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유망한 기업 발굴, 상담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하며, “하반기에도 채용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업의 구인 애로 해소 및 청년의 취업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누리집 주소 www.youth-jobfair.career.co.kr



벤처·혁신기업-청년 이음 채용설명회
온라인 개최 보도자료



<벤처·혁신기업-청년 이음 채용설명회>



현장NOW 10

● 2021년
●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2021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97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관련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형, 과정평가형) 등급별·연도별·성별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정부의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정책에 기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예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2020년까지 3,110만여 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노동시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이 자격취득자들의 직무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큐넷(www.Q-net.or.kr → 기술자격시험 → 자격검정통계 →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메뉴)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가기술자격통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NOW 11

●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 노동시장 이행 현황 발표

2021년 6월 3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6월 30일(수) 「KRIVET Issue Brief」 제213호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발간했다.

주요 발표내용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비경력단절 여성 두 집단 모두 20대 젊은 연령층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2015년~2019년 누계를 기준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은 46.6%, 비경력단절 여성 51.6%로 취업률 차이(5.0%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6년까지 경력단절 여성과 비경력단절 여성 집단 간 취업률 차이는 0.6%p로 크지 않았으나, 2017년 이후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2019년 누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았으며(고졸 이하 54.6%, 전문대졸 52.7%, 대졸 50.9%),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집단은 고졸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률이 높았다(전문대졸 59.9%, 대졸 59.6%, 고졸 이하 51.8%).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훈련 후 취업률이 1년 이상~2년 미만 62.0%에서 7년 이상~8년 미만 42.9%로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한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직업훈련이 보다 강화됨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훈련은 본인의 기존 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력단절 초기에 사전 역량진단과 함께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이행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1년 5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1

주요결과

- ❖ 취업자수가 +61.9만 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
- ❖ 정부는 가장 중요한 민생 척도인 고용이 금년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구조 변화 선제 대응,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겠음

2021년 5월
고용동향



취업자 및 실업자

5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1.9만 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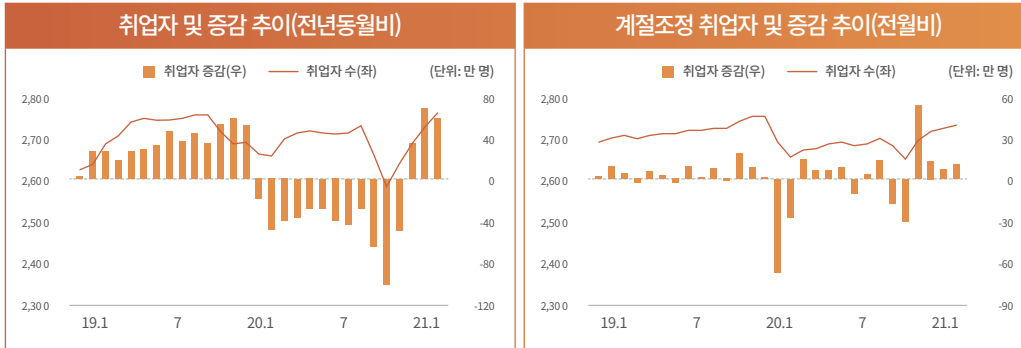
- * 취업자(만 명, 전년비) : ('20.12)△62.8 ('21.1)△98.2 (2)△47.3 (3)31.4 (4)65.2 (5)61.9
- * 15세 이상 고용률('20.5 → '21.5, %) : 60.2 → 61.2<+1.0%p> / 15~64세 고용률('20.5 → '21.5, %) : 65.8 → 66.9<+1.1%p> / 경제활동참가율('20.5 → '21.5, %) : 63.0 → 63.7<+0.7%p>

◇ 고용률·경황률이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 *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0.12)△1.7 ('21.1)△2.6 (2)△1.4 (3)0.3 (4)1.0 (5)1.0
- * 경황률 증감(전년비, %p) : ('20.12)△1.3 ('21.1)△1.7 (2)△1.0 (3)0.3 (4)1.0 (5)0.7

◇ 전월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10.1만 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하며 2월 이후로는 +82.8만 명 증가

-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 명) : ('21.1)△29.8 (2)53.2 (3)12.8 (4)6.8 (5)10.1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 농림어업은 감소

◇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제조업 고용이 2개월 연속 증가

- * 수출(% , 전년비) : ('21.1)11.4 (2)9.3 (3)16.4 (4)41.2 (5)45.6
-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4.6 (2)△2.7 (3)△1.1 (4)0.9 (5)1.9

◇ 서비스업은 민간·공공 일자리가 모두 개선되며 +47.7만 명 증가

-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89.8 (2)△50.2 (3)26.2 (4)50.7 (5)47.7

◇ 농림어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 건설업은 증가세 지속

-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1.4 (2)3.3 (3)△2.6 (4)△0.3 (5)△0.3
-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2.0 (2)2.8 (3)9.2 (4)14.1 (5)13.2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확대되고, 임시직 근로자도 증가세 지속,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세 지속, 무급가족 종사자 감소폭 축소

- * '21.4 → 5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상용직)31.1 → 35.5 (임시직)37.9 → 30.7 (일용직)3.8 →

△2.0 (고용유자영업자)△6.5 → △6.7 (고용무자영업자)2.7 → 5.3 (무급)△3.9 → △1.0

연령별로는 청년·50대·60대 취업자는 증가, 30~40대는 감소

* 21.4 → 5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청년)17.9 → 13.8 (30대)△9.8 → △6.9 (40대)△1.2 → △0.6 (50대)11.3 → 10.0 (60세 이상)46.9 → 45.5

실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

* 실업자(만 명) : ('20.12)113.5 ('21.1)157.0 (2)135.3 (3)121.5 (4)114.7 (5)114.8

- 증감(전년비, 만 명) : ('20.12)19.4 ('21.1)41.7 (2)20.1 (3)3.6 (4)△2.5 (5)△13.0

* 실업률(%) : ('20.12)4.1 ('21.1)5.7 (2)4.9 (3)4.3 (4)4.0 (5)4.0<전년비 △0.5%p>

일시휴직자는 42.2만 명으로 3개월 연속 큰 폭 감소세 지속

* 일시휴직자(만 명) : ('20.12)74.5 ('21.1)89.2 (2)69.8 (3)42.7 (4)40.3 (5)42.2

- 증감(전년비, 만 명) : ('20.12)43.8 ('21.1)34.6 (2)8.0 (3)△118.0 (4)△108.2 (5)△59.8

👤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 증가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31.4 (2)△14.2 (3)14.8 (4)17.9 (5)13.8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 ('21.1)△13.2 (2)△14.2 (3)△13.6 (4)△12.9 (5)△13.6

◇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확장실업률은 하락

* 청년 고용률('20.5 → '21.5, %) : 42.2 → 44.4 <+2.2%p>

* 청년 실업률('20.5 → '21.5, %) : 10.2 → 9.3 <△0.9%p> 청년 확장실업률('20.5 → '21.5, %) : 26.3 → 24.3 <△2.0%p>

◇ 청년 비경활인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구직활동 등이 정상화되며 감소세 지속

*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 명) : ('21.1)13.1 (2)△3.5 (3)△30.8 (4)△35.9 (5)△25.0

👤 평가 및 대응

5월 고용시장은 지난달 상황과 큰 틀에서 유사한 가운데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

① 4월에 이어 +60만 명 이상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전월비 취업자수(계절조정)도 4개월 연속 증가
- 올해 1월 저점 이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82.8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며, 코로나19 직전('20.2월) 대비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

②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집중된 서비스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큰 폭의 개선세 지속
- 서비스업중 전문·과학기술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고 비대면·디지털 전환과 관련성 높은 분야의 취업자도 3월 이후 지속 증가

③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연령별 고용상황도 전반적으로 개선
-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
-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감소를 감안한 고용상황은 2개월 연속 개선(고용률 상승)

④ 상용직 증가폭이 5개월 연속 견조하게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세도 유지

⑤ 다만, 비대면 유통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가 진행중인 도소매업, 코로나19 피해가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

정부는 취업자수가 금년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①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②고용구조변화 선제 대응, ③고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겠음

* 코로나19 고용 충격 직전('20.2) 대비 취업자수(계절조정) 약 20만 명 미회복

① 규제혁신,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의 정책 노력을 지속·강화

②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유망 기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

③ 조산업과 같이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지원 강화

④ 고용대책,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2차 추경예산을 검토

연구NOW 1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종료에 따른
NCS 활용변화 및 확산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6월
이호웅, 김덕영, 윤태복, 주홍석

주요내용

- 연구목적: 집체 및 원격 훈련비 지원체계 개선으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지원방안 제시
- 주요내용:
 - 현행 훈련비 지원단가 체계 개편방안 마련
 - 인터렉션(상호작용) 있는 훈련방식 지원체계의 개편-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제시
 - 일방향 콘텐츠 제공 훈련방식에 대한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현행 사업별 다양한 지원 체계현황 분석 및 적정성 검토, 대안 마련

연구NOW 2

●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7월
이시균 외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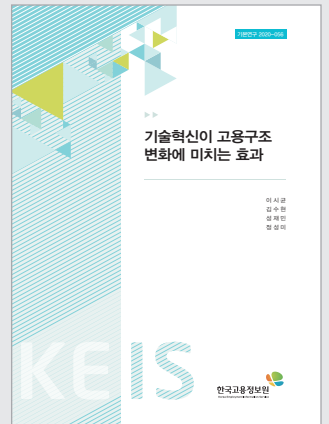
주요내용

- 기술혁신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과 주제별로 분석 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혁신은 고용구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도 증가하였지만 총고용량도 증가하였으나 고용양극화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임
-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도출에도 중요한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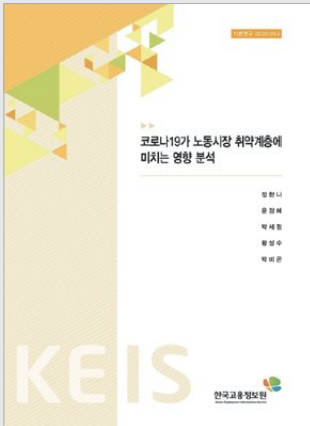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종료에 따른 NCS 활용변화 및 확산방안 연구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0년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성과 평가



연구NOW 3

●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7월
정한나, 윤정혜, 박세정, 황성수, 박비곤

주요내용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중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발생 후 고용동향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동향, 워크넷 구인·구직 건수 변화, 코로나19 확산이 구인 신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숙련 수준별 고용변동 등 분석

연구NOW 4

● 2020년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성과 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년 6월
김대영, 박종성, 박동진, 이민영

주요내용

-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은 도제학교, Uni-Tech, 전문대 재학 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P-TECH, 재직자 공동 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 등 여러 유형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들의 사업 수행과 성과 개선을 지원 및 촉진함으로써 일학습병행 정책 집행 및 목표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성과평가는 각 허브사업단의 강점 강화와 약점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 목적의 평가를 지향하며, 2019년부터 시행
- 이번 2020년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2021년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의 사업계획 보완 및 기관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의 조직학습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 및 변화 도모



6.2. 소프트웨어(SW)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6.9.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6.1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0주년
기념 및 우수기관 시상식

6.28.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7.6.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발대식

7.12.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운영

7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우수사례집 발간

7월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출범식

7월 2021년 4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7월 K-Digital Training 해커톤 본선 심사

5.7.~6.17. 직업능력의 달 행사용역 공고

6.14.~6.28.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
기술인 현장실사

6.18.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 개최

6.30. 드림스피커즈 6기 발대식

7.8. NCS-HRD 융합 포럼 2회차 개최

7.9. '21년도 일학습병행,
컨소시엄 사업 포럼

7.14.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회

5.24.~5.28.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6.22. 한국고용정보원-서원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23.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 간담회

6.24. 잡케어 3차 포럼 개최

7.5.~9.10. 제2회 대한민국 신직업,
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7.12. 제5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작품 접수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 실시

- 서울정수, 서울강서, 성남, 남인천, 화성, 강릉,
대전, 전남, 익산, 영남융합, 울산, 동부산캠퍼스

* 원서접수는 ipsi.kopo.ac.kr

6.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독립기념관
업무협약식

6.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청남도
교육청 업무협약식

6.10. 최고경영자과정 30기 수료식

6.23.~6.25. 집중학기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6.24.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7.1.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시총회

7.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

7.7.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출범식

7.9. 일학습병행·컨소시엄 사업 포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7.6.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발대식 개최

7.30. K-디지털 크레딧 훈련과정 선정
심사 및 결과공고

6~7월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양성
해커톤 개최

7월 월 상반기 주요 부정훈련사례
디지털 콘텐츠 배포

6.1.~6.4. 2021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신규 선도학교 학교장 연수

6.2. 기관명 변경 및 비전 선포식

6.18. 아세안직업교육협력사업
컨설턴트 및 협력학교
위촉식 및 연수

6.30. 2021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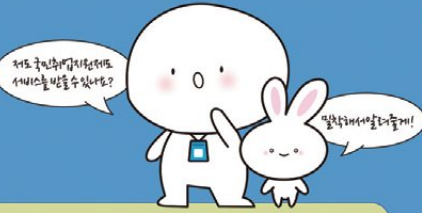
7.6.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직업능력
연구원 공동 웨비나 '한국의 직업교육
정책과 교훈'

7.6.서울/7.8.대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7.28. 제7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한국의 진로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내 일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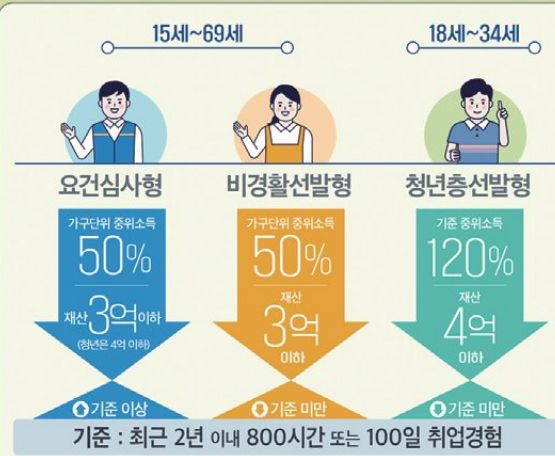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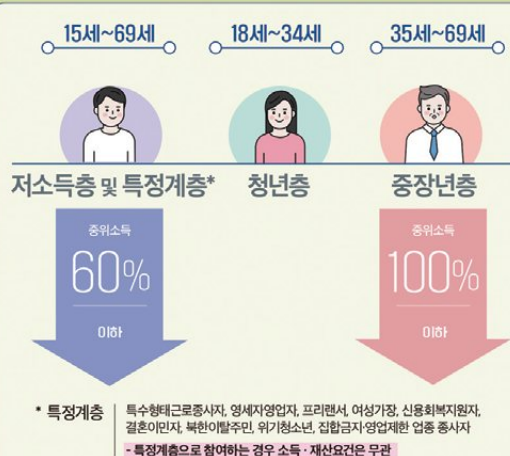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I 유형 구직촉진수당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p>구직촉진수당</p> <p>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p> <p>최대 300만원</p> <p>월 50만원 × 6개월</p>	<p>①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경로 설정</p> <p>②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p> <p>③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상담 / 동행면접</p> <p>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p> <p>*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 시</p>	<p>참여수당</p> <p>최대 20~25만원</p> <p>*참여유형,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p> <p>훈련비</p> <p>직업훈련참여시 훈련 참여수당</p> <p>월 최대 284,000원</p> <p>→ 최장 6개월간</p>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work.go.kr/kua)



문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